타정 사무소 크라임씨 보드게임

웹 상세페이지 디자인 이지원



목차

01

콘셉트

3page

02

스케치

4page

03

전체 페이지

5p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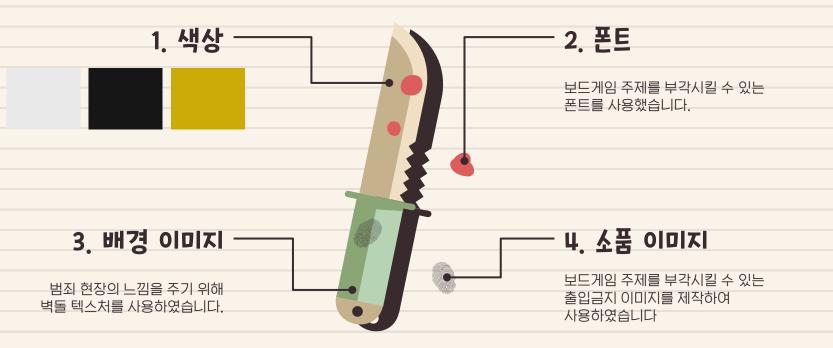
후기

6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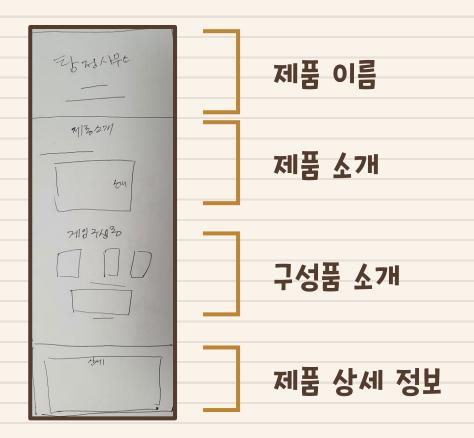


71 콘셉트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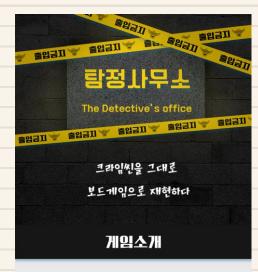


03

전체 페이지

보드게임 이름에 조명을 주어 미스터리 한 느낌을 더 해주었습니다.

출입 금지 선을 더해서 범죄 현장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탐점사무소 : Crime Scene ver. 은?

- 4~5인용 크라임씬 보드 게임입니다.
- [오페라 살인사건], [섬마을 살인사건] 총2개의 크라임씬 테마가 있습니다.
- 플레이어들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사건 현장을 수사하게 됩니다.
- 매라운드마다 용의자들의 장소로 이동하여 단서를 확인하고 범인을 찾는 마피아 추리 게임입니다.







"회대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방향하는 중걸"

의성하게 '방향하는 송물'의 주민은은 연기한 배우등에게는 안 중은 점등이 되어났다. 이에 사용들은 '병향하는 승강'을 가장하는 오래리라고 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루도, 건트되지 않았던 '방향하는 송경'을 운영하였다고 나선 점독이 있었다. 그는 한국 교육자체의자당 '심건독'이었다.

두 달 동안 전형된 공연의 마지막 정점. 주인공이 독막을 마시는 독액으로 마지막 모든 공연을 마였다. 이존물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주인공 역을 합보던 공주인이 얼마나시 있었다. 이용 이상하게 막긴 출인진은 그녀를 제되보지만. 그녀는 얼마나가 많았다.





"높은 파도로 인해 급히 정착한 어느 의반점"

인덕과 동편은 성에 있는 작은 마음로 들어산다. 높은 시간이 미니었는데 마음은 이두웠다. 인식과 동편은 유입하게 됐이 켜서 있는 집을 찾어갔다. 그 집은 마음 이정의 집이었고, 이정의 도움으로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 남, 한식과 동형은 배가 형박했던 곳으로 가보니 배가 마도에 피밀려 같는지 보이지 않았다. 다형의 자일의 자연 도움으로 다음 날 성을 떠나가고 한다. 이렇은 어짓도 인안이리며 응성의 전식에게 자녀를 다짐한다. 숨이 요가며 이렇은 자신의 및 영약되는 영화를 소개받는다.

즐거운 분위기에 송자리는 길이지는데~ 같은 세역, 영어가 죽은 제 발견된다



인물 물카드 4권 x 2



전체 지도 1장 x 2 단서 카드 33장 x 2 용의자 소지품 카드 12장 x 2 진행 카드 10장 x 2

진행 말 4개



후기!

평소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상세페이지 프로젝트가 쥐어졌을 때 바로 정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계획 없이 무턱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처럼 처음부터 스케치를 하고 콘셉트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기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방심하지 않고 항상 초심을 가지고 작업을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